

# 익산, 중국 진강시와 경제·관광 협력 강화

## 체육·예술 교류 확대 추진

정현을 익산시장이 20년 넘게 지속적인 교류·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자매도시 중국 진강시(中國 鎮江市)를 찾아 경제와 문화, 농업, 관광 분야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약속했다.

정 시장은 지난 11일 조규대 시의회

의장, 시의원, 여성단체 등 24명의 익산시 대표단과 함께 자매도시인 중국 진강시를 방문해 양 단체 간 주요 시정 추진 방향을 소개하고 교류·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3월과 5월에 각각 진강시 농업대표단과 진강시 인민대표회대표단이 익산시를 방문한 것에 대한 답방으로 진강시의 초청에 의해 이뤄졌다.

당시 익산을 방문한 진강시 방문단은 국가식품클러스터와 주요산업시설을 방문하며 경제, 농업, 관광 분야까지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장기적인 발전관계를 유지할 희망했다.

정현을 시장은 "시시각각 변화는 국제정세 속에서도 지속적인 교류·협력을 통해 양도시의 오랫동안 가꾸어온 우정이 다양한 분야에서 꽃피우길 바란다"며 "그동안 다져온 20년의 우정

을 넘어 백년을 기약하는 우호협력 관계로 더욱 돈독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진강시 장엄비 시장은 "익산시는 1998년부터 정치·경제·문화·체육 교류를 통해 오랜 옛 친구 같은 느낌을 갖고 있다"며 "앞으로도 익산시와 진강시의 폭넓은 교류를 통해 한국과 중국의 미래를 밝혀 나가자"고 화답했다. /익산=장인천 기자



익산시는 전북의 젓줄 만경강, 길이 80.86km 달하는 일대에 물억새의 은빛 물결로 장관을 이루 관광객을 유혹하고 있다.

## 춘포 만경강길, 은빛 물억새 '장관'

수변공원·쉼터 등 볼거리·실거리 가득  
11월까지 제방 사수정서 자전거 무료 대여

익산시는 전북의 젓줄 만경강, 길이 80.86km 달하는 일대에 물억새의 은빛 물결로 장관을 이루 관광객을 유혹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유역면적은 1504.35km로 강물과 습지, 억새밭이 어우러져 펼쳐진 규모는 1969개의 섬으로 이뤄진 베트남의 하롱베이(면적 1553km에)와 맞먹는다.

바람을 타고 은빛 억새가 동시에 일렁이며 춤을 추는 모습에 감상하기에 가장 좋은 방법은 만경강 독일의 시작점 익산시 춘포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춘포지구에서 목천대교 방향으로 물억새가 가장 웅장하게 펼쳐져 있으며 수변공원과 축구장, 제방 잔디공원과 쉼터 등이 있어 다양한 볼거리와 실거리가 가득하다.

특히 춘포 문학 마당 건너편에는 억새밭으로 내려가는 계단이 있어 억새를 멀리서 바라볼 뿐만 아니라 억새숲 사이에 난 길을 걸어가며 바람에 억새의 하얀 털들이 파란 하늘 위로 흩날리는 순간을 생생히 경험할 수 있다.

시는 올해 11월까지 시범적으로 만경강자전거 라이딩을 즐길 수 있도록 제방 사수정에 자전거 무료 대여소를 운영한다.

주말과 공휴일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운영되며 1인용과 2인용 자전거, 안전 헬멧 등이 준비돼 있고 1회에 2시간씩 대여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많은 관광객이 은빛 물억새가 출렁이는 익산에 방문해 무르익은 가을을 만끽하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익산=장인천 기자

## 군산시, 2020 해양제전 준비지원 추진단 실무회의 개최

### 벤치마킹 통해 자료 수집 등 준비에 만전

자립도시 군산시가 오는 2020년 열리는 군산해양제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13일 시에 따르면 천혜의 자연환경이 아름다운 군산에서 개최되는 제15회 전국해양스포츠제전을 앞두고 추진단을 구성하고 실무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 참여한 준비지원 추진

단은 전라북도, 군산시, 전북체육회, 도 종목별협회, 한국해양소년단 전북연맹 등 관계자 30여명으로 구성됐다.

회의는 추진단 위촉 및 상견례와 성공적 개최를 위한 각 분야별 전문적 의견수렴, 해양제전이 개최될 경기장 및 개·폐회식장 방문으로 진행됐다.

시는 2020 군산해양제전 준비를 위

해 지난 7월 22일 정기인사에 해양제전팀을 구성하고, 8월 참관단을 구성해 제14회 해양제전 개최지 시흥을 방문, 차기년도 개최지 군산호보관 운영과 대회 전반에 대한 벤치마킹을 통해 자료를 수집, 현장 방문을 통해 발전된 방향을 모색하며 해양제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했다.

군산에서 개최되는 제전은 정식종목 4종목을 포함해 번의·체협·해양행사 등 20여개 종목이 선유도, 비응항, 은파호수공원 등 군산시 일원

에서 개최되며 임원, 선수, 관광객 등 20만여 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관기 항만해양과장은 "해양제전이 개최될 4개소 경기장별 기반시설 및 편의시설 등을 현장방문해 기반시설 확충 및 홍보, 대회기관 협력사항 등 꼼꼼히 체크했다"면서 "다양한 의견수렴으로 오는 2020년 군산해양제전의 성공개최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 김장철 채소쓰레기 특별처리기간 운영 무상 수거

군산시, 18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배출 시 생활쓰레기 섞이지 말아야

군산시는 오는 18일부터 12월 31일까지 김장쓰레기 특별처리기간을 운영해 무상으로 김장철 채소쓰레기를 수거한다고 밝혔다.

특별처리기간 동안에는 김장 후 다량으로 발생하는 채소 등을 처리비용 없이 무상으로 수거해 김장철 채소쓰레기 처리에 따른 시민 부담을 덜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무상으로 수거되는 김장철 채소쓰레기는 김장철 채소쓰레기를 내용물 확인이 가능한 일반 투명비닐봉투에 담아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면 된다.

하지만 배출 시 일반 생활쓰레기가 섞여 있으면 수거되지 않아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며 특별처리기

간 이후에는 종전대로 종량제 봉투에 넣어 배출해야 한다.

채양근 자원순환과장은 "김장철 채소쓰레기 특별처리기간을 운영해 시민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겠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 경로당 회장 역량강화교육

군산시, 관내 515명 대상

군산시는 대한노인회 군산시지회(지회장 황광택)와 함께 관내 경로당 회장 515명을 대상으로 '2019년 경로당 회장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은 식전공연으로 사랑나무 봉사단의 색소폰연주를 시작으로 이 후용 대한노인회 군산시지회 사무국장 장의 경로당운영 및 당면업무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특히 마지막으로 실시된 탁여송 노인지원재단 사무처장의 '고령화 사회와 바깥직한 노인지도상' 특강시간은 함께 참석한 경로당 회장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우리 지역 경로당이 더욱 활성화 되고 어르신들의 편안한 쉼터가 되길 바란다"며 "어르신들이 건강해야 군산을 뒤에서 후원해 주는 든든한 배경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 원광대 한중관계연구원 학술지, 한국연구재단 등재 학술지 선정

원광대학교(총장 박맹수) 한중관계연구원이 발간하는 학술지 '한중관계연구'가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로 최종 선정됐다.

한중관계연구는 2015년 3월 창간된 이후 2017년 8월 등재후보지에 이어 2019년 11월 등재학술지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에 따라 한중관계연구원은 명실상부 한중관계 전문 연구원으로서

의 위상을 높였으며, 학술지 '한중관계연구' 또한 전문학술지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연 3회 발간되는 한중관계연구는 한중관계와 관련한 정치, 경제, 역사문화, 법률 분야에서 다양한 논문을 게재하고 있으며, 향후 한중관계연구의 학술 가치와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해 '한중관계 기획논문' 등을 준비하고 있다.

유지원(한중관계연구 편집위원장) 교수는 "한중관계연구가 이렇게 단기간에 등재학술지로 선정된 것은 한중 양국의 '관계' 연구가 국가적으로 얼마나 중요한 사안인지를 반증한다"며, "한중관계연구원은 사명감을 갖고 한중 학자 간 교류와 연구의 장으로서 한중관계연구를 발전시키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 양돈 농가 소득증대 소비 촉진 시식회

군산시, 20% 할인 판매도

군산시는 최근 아프리카돼지열병(ASF)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돈농가의 어려움을 함께한다는 취지에서 한돈자조금과 (사)대한한돈협회군산지부와 함께 '군산지역 한돈 소비촉진 시식회'를 개최했다.

13일 열린 이번 시식회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구매를 꺼려 양돈농가가 큰 위기에 처해 추진됐다.

특히 삼겹살, 목살 등 인기 부위를 포함한 다양한 부위를 2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를 같이해 판매촉진에

그 의미를 더했다.

또 군산시는 시립도서관, 월명체육관 등에 있는 전광판을 통해 아프리카돼지열병(ASF)에 대한 국산 돼지고기의 안전성을 알리는 캠페인도 함께 진행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사람에게 절대 감염되지 않으며 국산 돼지는 매우 안전하고 신선한 먹거리임에도 아프리카돼지열병(ASF)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구매를 꺼려 양돈농가가 큰 위기에 처했다"며 "돼지고기 안전성 홍보 캠페인과 양돈농가 소득증대를 위한 소비촉진 행사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저희매일의 지구온난화 캠페인